http://dx.doi.org/10.35431/MINJOK.80.3

우크라이나 전쟁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김 일 수 (충북대학교)
(mukim65@naver.com)

국문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나토확장 정책과 이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우크라이나의 친 서방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본 논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 미국과 러시아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유럽에서 미국의 패권 유지와 러시아의 영향력 복원 의지에 따른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해온 나토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같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미국외교정책의 비전으로 내세우며 나토 확장, 동유럽에서 미사일 방어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러시아는 동유럽에서 영향력 유지로 대응해 왔는데, 이러한 두 국가 간의 대립적인 군사 정책과 전략은 미·러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본 논문은 미국이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고 향후 아시아 재균형을 통한 중국을 견제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경제제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러시아에 민스크 협정을 실천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외교적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미국은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주제어 : 나토 확장, 미국적 국제주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우크라이나 전쟁

Ⅰ. 서 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가하면서, 냉전종식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한지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동유럽에서 다시 한번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다.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 북부 국경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대규모의 러시아 침공으로 국제사회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전쟁이 5개월을 넘기며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책과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가진 이해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싸움이 아닌 미국 및 나토 유럽 국가와 러시아 간의 대리전의 성격도 나타나고 있어 국제관계의 역학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본 논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외교정책의 두 비전인 미국적 국제주의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각 행정부의 미국 외교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 미국의 나토 정책과 이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을 설명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 이후 추진한 친 서방 정책이 현재의 전쟁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향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Ⅱ. 미국외교정책의 비전과 변화 : 미국적 국제주의 vs.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미국이 어떻게 세계정치에서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와 관련해 두 가지 비전이 경쟁해 왔는데, 그것은 고립주의와 국제주의이다. 고립주의가 유럽의 세력균형 정책에서 벗어나 미국 경제발전에 초점을 둔 외교정책이라면, 국제주의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국제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건국 이후 미국 내에서는 미국의 외교정책 비전을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할지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졌다. 해밀턴(Alexander Hamilton)과 같은 연방주의자들은 미국이 세계에서 힘을 과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퍼슨(Thomas Jefferson)과 같은 주권주의자들

은 미국의 상업이 가장 중요하며 꼭 필요한 군대만 보유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미국에서는 고립주의(Isolationism) 정책이 채택되었다.

고립주의는 외국의 어느 지역과도 영구적인 동맹을 맺지 않고 유럽의 정치와 전쟁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미국을 분리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최선이 된다는 신념이다(Wittkopf and McCormick 1999, 36). 미국은 건국 이후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주로 고립주의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면서, 국제연맹 가입을 거부했고 미국 의회는 1930년대에 대외 분쟁에서 미국이 중립 정책을 취하게 하는 일련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건국 이후 줄곧 고립주의를 표방해왔던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외교정책의 방향을 국제주의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국제주의는 국제적 원칙과 국가 간 협력 정책을 내세우며, 미국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문제나 사건에 관여해야 한다는 외교적 신념이다(Ikenberry 2018).

국제주의는 미국적 국제주의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미국적 국제주의는 국제체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선호하고 잠재적인 대항 세력보다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미국적 국제주의는 다자주의보다 미국의 일방주의를 선호한다. 많은 행위자가 참여할수록 미국이 원하는 바가 실현되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적 국제주의는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미국적 국제주의를 신념으로 선택하는 미국의 대통령들은 미국의 패권 유지가 세계평화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산주의를 봉쇄하고 잠재적 도전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강한 군사력의 보유를 통해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고 석유 자원을 확보하고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Kyl and Lieberman 2016).

반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미국적 가치와 제도가 확산하면 국제체제가 더 안정적으로 변한다고 믿는다. 이에 따라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하드파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소프트파워, 자유무역, 국제제도 등을 강조한다(Ikenberry 2009). 국제문제를 해결하는데 국제공조를 통해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다자주의를 선호하는 한편, 국제원조를 옹호하고 국제기구들이 자유주의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으며, 국가 간의 협력과 평화를 촉진한다고 믿는다(Rielly 1999).

냉전 기간 미국은 미국적 국제주의를 내세우며 소련의 팽창과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김일수 2014). 이와 동시에 자유, 인권, 시장경제 확산을 위한 UN, 나토 등 다자간 협력체를 설립하며 세계 국가들과의 협력 속에서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냉전의 종식으로 미국은 독보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 소련의 붕괴로 미국은 "단극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서 미국은 필요하다면 무력으로라도 미국적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된 것이었다(Krauthammer 1990).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무렵의 국제질서는 미국적 국제주의가 가장 만연했던 시기로 이를 반영하듯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에 의해 감행된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자신감을 드러낸 전쟁이었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봉쇄만으로는 부족하며, 예방 전쟁으로써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세웠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적 국제주의는 미국적 개입주의로 불리기도 한다(Ikenberry 2018).

반면,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초점을 두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바탕으로 핵확산과 테러리즘과 같은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였고, 2010년 러시아와 신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 서명하였다. 나토의 동진 및 EU의 확대와 관련해 미·러 관계가 갈등 상황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양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체제 유지와 같은 국제적 사안에 대해서 협력을 이루었다.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을 내세우며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표방하였다.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이념적 기반으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원칙적으로 전임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유산을 거부하고 다자질서를 회복할 것임을 내세웠다. 또한 미국과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재건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무엇보다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주장하였다.

이처럼 미국 외교정책에서 행정부마다 국제주의의 지향하는 목표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의 미국적 가치를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자유주의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한 미국 외교정책의 방향은 공통의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바이든 행정부에도 이어지고 있다.

Ⅲ. 나토 확장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과 원인을 나토의 확장과 연관 지어 미국의 책임과 러시아의 책임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이는 나토의 확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관련된다. 러시아의 잘못이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무엇보다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Vladimir Putin)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 푸틴의 독재 정부는 나토가

러시아에 아무런 위협도 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편집증적 외교 행태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Owen 2022; Mulligan 2022).

반대로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는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신념에 따른 나토의 동진 확장에 안보적 위협을 느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Mearsheimer 2014). 러시아의 2008년 조지아 공격,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나아가 2022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나토 확대에 따른 러시아의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나토의 확장정책과 관련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역학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의 나토 정책

나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9년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12개 국가에 의해 설립된 군사동맹으로, 전후 나토를 출범시킨 것은 구소련을 봉쇄하고 소련의 유럽으로의 확장을 견제하여 서유럽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나토는 하나의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는 집단 방어를 담보하고 있다(Cottrell 1960). 이에 대응해 구소련은 1955년 소련·동유럽 집단안보체제로 바르샤바조약기구(Warsaw Treaty Organization)를 설립하였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바르샤바조약기구도 해체되었으나, 나토는 1997년 이후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이었던 12개 국가들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편입시켰다.

미국은 소련이 와해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된 상황에서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을 확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토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유럽의 새로운 민주국가를 포함하는 것이 강력한 나토를 만드는 것이며, 이는 미국에도 유리하다고 여긴다(Rutland 2015). 반대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의해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된 상황에서 나토를 확대하는 것이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비판하였다(Gavin et al. 2022).

나토의 확장과 관련한 상반된 시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토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1994년 '평화를 위한 동반자' 프로그램, 1997년 유럽·대서양 동반자이사회 등을 통해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갔다. 1997년 나토는 과거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구성원이었던 체코, 헝가리, 폴란드의 나토가입을 승인하여 1999년 이 국가들을 가입시켰으며, 2004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등 7개국의 나토 가입이 이루어졌다.[1] 2008년 다시 한번 나토의 확장 시도로써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1) 나토는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Estonia), 라트비아(Latvia), 리투아니아(Lithuania)와 동유럽

나토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려는 선언문 채택을 촉구하였다.

미국은 나토의 확대와 관련한 러시아의 우려에 대해 나토의 창설 조항은 동맹의 가입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유럽 국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나토의 국가 중에서 러시아 국경과 연결되는 국가는 소수이며, 나토가 방어 동맹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위협을 느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2)]

나토의 영역 확대가 지속되면서, 나토의 개입도 확장되었다. 나토는 러시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999년 유엔안보리 결의 없이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였다. 또한 9.11 테러 이후 나토의 활동은 더욱 확대되어 2003년부터 아프가니스탄 군대의 훈련,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 소탕 작전 등을 전개했다.

부시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나토에 편입시키겠다고 결정한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국경의 서쪽 방파제로 만들고자 시도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담공유(burden-sharing) 문제로 미국-나토 사이의 동맹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도 하였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나토에 대한 재활성화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2021년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어공약을 천명하면서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인정하지 않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협상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지지를 보냈다(White House 202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는 탈냉전 이후 계속된 나토의 활동영역 및 확대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봉쇄전략을 내세웠던 전 소련 대사 캐난(George Kennan)은 1997년 나토를 확장하는 것은 "국가주의, 반서구 및 군국주의 경향에 불을 붙일 것이기 때문에 운명적 오류"가 될 것으로 지적하였다(Goldgeier 1999). 봉쇄정책 연구의 권위자인 개디스(John Gaddis)도 나토의 확장은 탈냉전기 현실을 잘못 반영한 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Beinart 2022).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 역시 본인의 회고록에서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시키고자 한 것은 지나친 것이었다고 언급하였다. 게이츠는 나토의 확장이 러시아인들이 중요한 국가이익으로 간주하는 것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Gates 2014). 실제 그에 따른 결과는 2008년 조지아와 2022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다.

4개국인 불가리아(Bulgaria), 루마니아(Romania), 슬로바키아(Slovakia), 슬로베니아(Slovenia) 총 7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2) 출처: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0521392 (검색일: 2022. 05. 31.).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2014)는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사태의 책임이 서방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어샤이머는 EU와 나토의 동진은 미국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앞마당이듯,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안보에 중요한데도 미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Mearsheimer 2014).

미어샤이머의 이러한 비판은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기반한 외교정책결정 실패를 지적한 것으로 미국과 유럽의 나토 확대, EU 확장, 민주주의의 촉진은 잘못된 것이라 여긴다. 특히 그는 친러시아 성향의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ych) 대통령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한 것과 러시아의 뒷마당에서 전략적 이익을 취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실패라고 주장한다(Mearsheimer 2014).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러시아의 안보에 대한 염려는 과한 주장이라고 본다. 아무도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는 안보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심지어 나토조차도 러시아를 위협하지 않았으며, 러시아가 자신들의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여긴다(Chotiner 2022).

2. 나토 팽창에 대한 러시아 반응

냉전 종식 후 러시아 외교는 좌절의 연속이었다. 경제력과 영향력을 상실한 러시아는 미국 패권에 의해 주도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는 구소련 공화국의 나토 가입 반대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묵살하였고, 1999년 나토군이 유고슬라비아에 폭격했을 때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보호할 수 없었다. 또한 러시아는 구공산권 동유럽 국가들에서 발생한 민주화 혁명인 조지아의 장미혁명(2003년), 오렌지혁명(2004년)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냉전이 종식되는 과정에서 당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나토의 영역 확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미국으로부터 나토 확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받으려 하였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하였다. 결국 소련의 내정 불안으로 무력해진 고르바초프는 나토 확장과 관련해 서면에 의한 어떠한 공식적인 약속도 보장받지 못했다. 계속된 나토 확장에 대해 고르바초프 이후 집권한 옐친과 푸틴은 유럽의 안보는 유럽인들이 처리해야 한다며 나토가 러시아에 근접하는 것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특히 푸틴은 강한 러시아의 회복을 주장하며 러시아 경제 회복을 위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푸틴은 국유화를 추진하는 등 국가의 통제 역할을 강조하였고, 러시아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을 취하면서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방식을 통해 미국과

서방에 대응하고자 했다(이종문 2010).

푸틴 정부는 미국의 나토 확장과 EU 확대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그는 '나토의 확장이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한 것인가'라며 미국에 불만을 쏟아냈고, 2007년 3월 푸틴은 뮌헨에서 나토의 러시아 국경으로의 병력 배치는 미러 간 상호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한겨레 08/04/01). 이어 2008년 4월 부카레스트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자 푸틴은 나토가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국가 분열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러시아는 나토 동맹의 설립 근거가 구소련을 봉쇄하는데 목표가 있었던 것처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나토 확대를 통해 러시아의 안보이익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이 본질적으로 유럽 안보구조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러시아가 협상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유럽 안보구조가 미국과 유럽만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러시아의 상황을 반영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하였다. 러시아는 2013년 우크라이나가 당시 진행 중이던 EU 가입 논의를 중단하고 친러 정책을 취하도록 압박하였다. 친러성향의 야누코비치가 EU 가입을 중단하자 이에 반대하는 유로마이단 혁명이 일어나면서 2014년 야누코비치 정부가 붕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Rutland 2015). 러시아는 유로마이단 시위가 크림반도의 러시아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는 명분으로 크림반도를 합병하였다.

러시아의 공격적 의지를 보여준 크림반도 합병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나토 가입에 적극적 정책을 내세우자, 러시아는 2021년 4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요구하였다. 이어 2021년 12월 7일에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민스크 협정과 노르망디 형식 회담[3]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이상준 2022).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지정학적, 안보적, 경제적, 문화적 이유 등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중·동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유럽 국가와 러시아 사이에서 완충지대로써의 역할을 하며, 유럽으로 이어지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수송로로도 중요하다. 또한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항구는 러시아 함대가 흑해에 직접 접근하여 유라시아에 주둔을 유지할 수

3) 민스크 협정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한 후 2015년 프랑스와 독일의 중재로 체결한 평화협정이다. 노르망디 형식 회담은 2019년 12월 9일 프랑스 파리에서 독일·프랑스·러시아·우크라이나 4개국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정부군과 친러 반군 간 분쟁 해결을 위해 논의한 회담이다.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크림반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Cohen 2014).

둘째, 안보적 이유 때문이다. 탈냉전 이후 빠르게 나토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적극적 나토 가입 정책은 세계 강국으로서의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로서는 향후 동유럽 질서의 향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활적 이익으로 양보할 수 없다.

셋째,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러시아는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러시아 중심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2010년 1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관세동맹을 맺고, 세 국가 간 무관세 무역을 도입했다. 2013년 9월과 12월에는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이 연합에 가입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015년 1월 1일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전신이다(Rutland 2015).

넷째, 문화적 동질성 때문이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자신들의 일부로 여겨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같은 정체성을 가진 국가로 인식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러시아와 사회적 · 문화적으로 긴밀한 동질성을 갖고 있다. 러시아 디아스포라 200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는 약 800만 명의 러시아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기 전 러시아는 나토에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보장받고자 하였다. 이후 러시아는 2022년 2월 17일 미국에 '안전보장협상'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서방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을 재차 강조하며 동유럽의 안보구조를 구소련 해체 시기로 되돌려 놓을 것 등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하자 러시아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남동우 외 2022, 1064).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현 민주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한 시도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고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나토의 동진 확대를 저지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와 같은 탈 소비에트 국가들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하며, 강한 러시아를 위해 구소련권 국가들과 연대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다(Carpenter 2022).

3.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책과 러시아와의 갈등

우크라이나는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친서방 정책을 취해왔는데 그 이유는 크게 안보적, 경제적, 민주화를 위해서다.

첫째, 우크라이나는 안보적 측면에서 친 EU, 친 나토 정책이 자국의 안보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직후 약 1,900여 기의 전략 핵탄두를 가진 세계에서

세 번째의 핵보유국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핵 포기의 대가로 안보를 보장한다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서명하며 핵무기를 포기하였다.[4] 이는 1994년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이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의 기존 국경을 존중해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하며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데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약속을 통해 미국이 핵 철거 비용을 부담하면서 핵탄두가 제거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러시아에 의해 크림반도가 강제 합병되는 등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의회는 2019년 헌법에 EU와 나토 가입을 명문화한 개헌안을 승인하였다(Pifer 2019).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나토에 가입하면 나토의 집단방어 원칙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경제권에 편입시키고자 하였지만, 우크라이나는 경제적으로 EU와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우크라이나는 EU 블록에 가입하게 되면 효율적인 금융 시장이 확보되어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크라이나의 경제가 안정되면 경제적 불확실성의 감소로 투자가 장려되고, 이에 따른 고용증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국민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여긴다.

무엇보다도 EU 블록 가입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유럽 국가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신청했다고 해서 EU 가입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EU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일단 신청국이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모든 영역에서 EU 규칙과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시장경제, 안정된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을 통해 러시아에서 벗어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였지만 야누코비치 재임 당시 이루어졌던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시도는 러시아에 의해 무산된 바가 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EU 가입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푸틴 대통령이 EU는 안보협력체가 아닌 경제협력체로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해 러시아가 반대할 이유가 없음을 밝히고 있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후 민주화를

4)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 in connection with Ukraine's accession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reaties.un.org. December 5, 1994. https://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203007/Part/volume-3007-I-52241.pdf(검색일: 2022. 06. 10.).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 2004년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오렌지혁명은 서방의 지지를 받았고 이후 당선된 유셴코(Viktor Yushchenko)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임을 내세웠다. 2014년 3월 러시아에 의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가 합병되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독립국가연합에서 탈퇴하였고, 나토와 EU에 가입함으로써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 2022년 3월,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대통령은 탄원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이유는 "유럽의 동등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EU 블록에 가입하기 위한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결사 항전을 천명하면서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다짐을 이어가고 있다.

Ⅳ.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외교정책

우크라이나 침공이 6개월을 넘기며 애초 예상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민주적인 주권 국가로 남아 있으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 옵션과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몇 가지 측면에서 전망해보고자 한다.

1. 우크라이나 전쟁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전략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를 추구하는 국가들과 수정주의 권위주의 국가와의 대결 구도로 인식하고 이 전쟁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위협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역의 국가들이 러시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푸틴을 전쟁 범죄자로 규정하였고, 4월 13일에는 러시아 침공에 대해 집단학살(genocide)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강하게 비난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는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러시아에 파괴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방어할 무기를 보유하게 할 것이라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먼저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공격에 대응하여 금융제재, 수출규제, 에너지 관련 금수 조치, 정치인 및

재계 주요 인사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금융제재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과 러시아군 활동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여기는 군사은행 등 2곳의 러시아 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동결시키고 미국 및 유럽과의 거래를 전면 봉쇄하였다. 또한 러시아 국채에 대한 제재를 통해 러시아가 서구 국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기존의 국채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미국은 2022년 3월 13일부터 러시아 국책은행인 VTB 은행 등 러시아 7개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퇴출시키고,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보유외환 동결 조치 등을 단행하며 러시아를 재정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은 러시아의 경제를 압박하기 위해 첨단 기술 관련 제품과 부품에 대한 수출통제를 가하고 최혜국대우를 박탈하였다(매일경제 22/02/25). 미국은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대상으로 반도체, 컴퓨터·통신, 센서 및 레이저,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수출통제 품목 번호를 추가하였으며, 이밖에도 러시아산 수산물과 다이아몬드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러시아 에너지 금수 조치도 단행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8일 러시아의 최대 외화 수입원인 원유 및 천연가스를 비롯해 석탄 등에 대한 수입을 전격 중단시켰고, 미국인이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에 신규로 투자하는 것 등을 금지했다. 같은 날 영국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을 발표했으며, 독일은 이러한 조치에 앞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가스 송유관 '노드스트림2' 승인을 중단했다(일요신문 22/02/23).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를 통해 러시아 경제를 1980년대 이전 상황의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Bennett 2022). 이 제재의 결과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투자 금지가 이루어지고 600개 이상의 러시아 주재 미국 기업들이 철수하였다. 또한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하락하고 주식이 폭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원유 수출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은 다르게 나타난다. 천연가스의 50% 정도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독일을 비롯해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어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본래 경제제재의 목적은 상대 국가의 행동을 교정하여 그 국가의 외교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산 에너지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은 경제재제의 효과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지원을 증대시

키고 있다. 즉,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와 직접 전면전을 벌이지 않는 대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다.

미국은 2022년 초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이상의 긴급 안보 지원을 제공한 후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포함하는 추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미 의회는 지난 4월 28일 무기대여법 개정안을 가결해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상 실시간·무제한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위해 330억 달러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등의 무기 지원과 함께 저격소총, 유탄발사기, 야간투시경, 레이더, 초계함 등 다양한 장비를 제공하였다.[5)]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대응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실시한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83%가 우크라이나군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양당 평균 89%는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지속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elhami 2022).

2.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과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방안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스타일이 다자주의와 협상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바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가 이루어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통치 행태를 보여준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제재에 초점을 두면서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대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 내 여론이 군사 개입에 부정적이다. AP 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응답자의 72%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미국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으며, 공화당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elhami 2022; Pew Research Center 2022).

셋째, 안보적 이유이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유럽과

5) 출처: https://www.cfr.org/backgrounder/ukraine-conflict-crossroads-europe-and-russia (검색일: 2022. 05. 30.).

푸틴 러시아의 갈등 지대가 되었다. 그러나 소련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는 유럽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에게 중요한 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확대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직접 미군을 파병하지는 않을 것임을 표명하였다(White House 2022).

미국은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옵션을 선택하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으로 확산하여 나토 동맹국들을 공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미국의 개입으로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시행할 것을 미국에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나토 회원국들이 공격받을 때만 비행금지 구역을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침공 이후 줄곧 미국에 동조하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휴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강력한 옵션은 푸틴을 축출하여 러시아에서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25일 바르샤바에서 푸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기도 하였다. 미국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정권교체를 하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러시아가 정전을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라크, 리비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국가에 대한 정권교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김일수 2019, 117).

3. 우크라이나의 중립화와 미국의 역할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방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상반된 입장으로 나타난다. 러시아에서 내세우는 우크라이나 중립화 방안은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의 모델을 따라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를 이루는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중립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향후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여기겠다고 주장한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도 러시아가 제안하는 중립화 방안은 거부한다. 우크라이나는 동맹국에 의한 직접적이고 확실한 안전보장이 제공되어야 우크라이나의 중립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The

Gurdain 22/03/30).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방안은 그 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이 미국의 나토 동진 확장과 우크라이나의 친 서방 정책에 있다고 여기는 학자들에게서 강조됐던 주장이다. 미 국무장관을 역임한 키신저(Henry Kissinger)는 일찍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신 편으로 만들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중립을 강조하였다.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전 국무장관도 우크라이나의 중립화가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Beinart 2022). 미어샤이머 교수는 현재의 우크라이나 사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러시아에 확신시켜야 하며 우크라이나를 중립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Mearsheimer 2014).

우크라이나의 중립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지난 4월 26일 블링컨(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블링컨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기 위해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중립국이나 비동맹국가가 되는 것과 관련해 러시아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미국은 존중할 것이라고 밝히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중앙일보 22/04/27).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래 미국과 나토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군사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어느 쪽도 군사적으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느 쪽도 절대적 힘을 바탕으로 다른 쪽을 억지하지 못하며 전쟁이 종료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반영하듯, 열세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우크라이나가 대치 상태를 이어가며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도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중립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입장차이로 이 또한 쉽지 않다. 따라서 러시아로 하여금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가 어렵다는 것을 직시시키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영토 문제를 절충하도록 하여 친러 성향의 지역을 독립지역으로 인정하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대를 철수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닌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 구도 속에서 미·러 한쪽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유럽에서의 미국 패권 유지와 러시아의 영향력 복원 의지에 따른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즉, 탈냉전 이후 계속된 미국의 나토 확장, 미국의 동유럽에서의 미사일방어 건설 추진, 조지아 및 우크라이나 등에서의 민주화 혁명,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책에 따른 EU 및 나토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푸틴 행정부의 강한 러시아 정책 등 다양하고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EU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향후 우크라이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역의 기반 시설을 파괴하며 우크라이나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국가 기능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미국과 나토의 지원만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패퇴시킬 가능성은 작아지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크라이나가 붕괴할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푸틴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쉽게 몰락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우크라이나의 강한 저항과 대응이 이루어지며 예상치 못한 전쟁의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러시아의 경제적 어려움도 증대될 것이다. 경제침체는 국내적인 불만을 일으켜 푸틴 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바마 행정부 이후 외교의 중심축을 아태지역으로 조정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에 몰두해 온 미국에게 외교적 딜레마이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여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영향력을 회복하게 된다면 나토와 러시아는 신냉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에서 동맹관계를 공고화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써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고 이후의 유럽 안보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전쟁을 평화적으로 중단시킬 것인지, 전쟁 이후 나토의 정체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또한 아태지역 중심의 외교정책을 추진해온 미국이 유럽 안보와 관련해 나토 역할을 유지 또는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방어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쟁을 종식하고 향후 미국 패권 유지를 위해 아시아 재균형을 통한 중국을 견제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제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아닌 새로운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나토와 EU의 확대가 러시아의 국가이익을 훼손해 현재의 전쟁이 발생했다는 푸틴 정부를 '범죄자'로 치부하기보다는, 빠르게 휴전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떠날 수 있는 명분을 주도록 노력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러시아에 민스크 협정을 실천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허용하지만 나토에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지 않을 방침을 내세워 전쟁이 종식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동부는 자치국이 되거나, 러시아가 침략을 끝내는 대가로 러시아 일부가 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도희. 2020.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른 미국의 국제적 역할 변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79호. 2020.12.15.
- 김동수. 2021.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자유주의적 헤게모니로의 회귀. 인문사회과학연구 22(1), 415-438.
- 김동열. 2015. 미국의 대러시아 외교: 지정학의 회귀?. JPI정책포럼 2015-07, 1-13.
- 김성진. 2022. 러시아 국가안보전략의 변화. 중소연구 45(4), 175-218.
- 김일수. 2014.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이론과 실제. 충북대학교 출판부.
- _____. 2019. 트럼프 행정부의 대 이란 정책 : 쟁점 및 전망. 한국정치정보학회 22(1), 99-126.
- 남동우·김덕기. 2022.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의 역사적 근원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반도 안보에 주는 전략적 함의. 인문사회 21 13(2), 1063-1074.
- 박정호 외. 2022.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2(6), 2022.3.21.
- 신범식. 2009. 21세기 러시아의 동맹·우방 정책의 변화와 전망. EAI NSP Report 41.
- _____. 2019. 러시아 외교안보 정책과 한·러 관계 2030. 신아세아 26(3), 134-172.
- 윤익중. 2016. 러시아-미국 관계발전과 중앙아시아: 푸틴 3기 정권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40(3), 223-268.
- 이상준. 2022. 우크라이나 위기와 국제질서의 변화 가능성. issue brief 2022-06, 1-12.
- 이종문. 2010. 푸틴시대 러시아 국가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 국가경제발전모델의 관점에서. 한국과 국제정치 26(1), 69-105.
- 이태림. 2021. 3.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미·러 관계 전망.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56, 1-30.
- 이홍섭. 2015. 푸틴의 반서방주의와 러-미 관계 조망. JPI정책포럼 2015-01, 6-17.
- 전재성. 2020.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외교정책 공약과 미래의 세계질서. EAI스페셜 리포트 2020.08, 1-18.
- 제성훈. 2016. 탈냉전기 미·러 관계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위기'. 국제지역연구 20(1), 31-58.

■ 조한범. 2022. 우크라이나 사태 평가와 국제질서 변화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22.4.14.
■ 최재덕. 2020. 코로나 팬데믹 시대, 국제질서의 변화와 러시아의 외교전략. 중소연구 44(3), 49-53.
■ 홍완석. 2021. '신 냉전 2.0'으로의 질주?: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미·러 관계. 슬라브학보 36(1), 207-236.
■ Bennett, John T. 2022. Biden's Actions and Words since Warsaw Align with Walked-back Declaration that Putin must Go. https://rollcall.com/2022/04/07/bidens-actions-and-words-since-warsaw-align-with-walked-back-declaration-that-putin-must-go/
■ Carpenter, Ted Galen. 2022. Ignored Warnings: How NATO Expansion Led To The Current Ukraine Tragedy.
■ Chotiner, Isaac. 2022. The Soft-Power Politics That Exploded Into War: Did Russia repel Ukraine, or did Europe pull it in?.
■ Cohen, S. 2014. U.S. Reaction to Russia in Ukraine: Time for Realism and Common Sense on Ukraine. The Nation.
■ Copp, Tara. 2022. Biden's Nuke Review Omits 'No First Use', Kills Naval Cruise Missile. https://www.defenseone.com/policy/2022/03/bidens-nuke-review-omits-no-first-use-kills-naval-cruise-missile/363823/
■ Cottrell, Alvin J. 1960. NATO: Cornerstone of U.S. Foreign Policy. Current History 39(229), 139-146.
■ Deni, John R. 2021. U.S. Force Structure Changes in Europe: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April 19, 2021.https://www.fpri.org/article/2021/04/u-s-force-structure-changes-in-europe-necessary-but-not-sufficient/
■ Febber, John. 1996. The Costs and Dangers of NATO Expansion. https://ips-dc.org/the_costs_and_dangers_of_nato_expansion/
■ Gates, Robert M. 2014. Duty: Memoirs of a Secretary at War. Knopf Publishing Group.
■ Gavin, Francis, Joseph S. Nye, and Stephen M. Walt. 2022. Was NATO Enlargement

a Mistake?. April 19, 2022. https://www.belfercenter.org/publication/was-nato-enlargement-mistake

- Goldgeier, James. 1999. The U.S. Decision to Enlarge NATO. Brookings Review Summer 1999, 19-21.
- Ikenberry, John G. 2009. Liberal Internationalism 3.0: America and the Dilemmas of Liberal World Order. Perspectives on Politics 7(1), 71-87.
- _____. 2018. The end of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ternational Affairs 94(1), 7–23.
- Krauthammer, Charles. 1990. The Unipolar Moment. Foreign Affairs 70(1), America and the World 1990/91, 23-33.
- Krieg, Andreas. 2022.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crisis of liberalism. 14 April, 2022.
- Kyl and Joseph Lieberman. 2016. The Case for American Internationalism. https://www.bushcenter.org/catalyst/leadership/the-case-for-american-internationalism.hml
- Marks, Ramon. 2022. Ukraine Has Forever Changed Europe's Balance of Power.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ukraine-has-forever-changed-europe%E2%80%99s-balance-power-201498
- Mazumdar, Arjun. 2022. UChicago Professors Weight in on the War in Ukraine.https://chicagomaroon.com/article/2022/4/24/uchicago-professors-weigh-war-ukraine/
- Mearsheimer, John. 2014. Why the Ukraine Crisis Is the West's Fault.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14, 1-12.
- Memorandum, Budapest. 1994.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 in connection with Ukraine's accession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reaties.un.org. December 5, 1994. https://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203007/Part/volume-3007-I-52241.pdf
- Mulligan, William. 2022. Erosions, Ruptures, and the Ending of International Orders: Putin's Invasion of Ukraine in Historical Perspective, Society 59, 259-267.

■ Nixon, Richard M. 1967. Asia After Vietnam. Foreign Affairs 46(1), 111-125.
■ Nye, Joseph. 2022. Realism about Foreign-Policy Realism. Feb 2, 2022.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ukraine-and-limits-of-foreign-policy-realism-by-joseph-s-nye-2022-02
■ Owen, John M. 2022. "Is the War in Ukraine the Fault of the West?" https://millercenter.org/war-ukraine-fault-west
■ Peter Beinart. 2022. America's Generation Gap on Ukraine. Jan 24, 2022. https://peterbeinart.substack.com/p/americas-generation-gap-on-ukraine?s=rJon
■ Peterson, Robert and Michael McFaul. 2022. What Putin Fears Most. April 2022.
■ Rielly, John E. 1999. Americans and the world: a survey at century's end. Foreign policy, 97-114.
■ Pifer, Steve. 2019. Why Care about Ukraine and the Budapest Memorandom. December 5, 2019.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19/12/05/why-care-about-ukraine-and-the-budapest-memorandum/
■ Rutland, Peter. 2015. An Unnecessary War: The Geopolitical Roots of the Ukraine Crisis. April 9, 2015. https://www.e-ir.info/2015/04/09/an-unnecessary-war-the-geopolitical-roots-of-the-ukraine-crisis/
■ Shifrinson, Joshua R. 2020. NATO enlargement and US foreign policy: the origins, durability, and impact of an idea. International Politics 57, 342–370.
■ Sullivan, Becky. How NATO's Expansion Helped Drive Putin to Invade Ukraine. US Department of Defense, Fact Sheet: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 Telhami, Shibley. 2022. What do American Think of the Russia-Ukraine War and of the US Response?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22/03/31/what-do-americans-think-of-the-russia-ukraine-war-and-of-the-us-response/
■ White House. Joint Statement on the U.S.-Ukraine Strategic Partnership. September. 1, 202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9/01/joint-statement-on-the-u-s-ukraine-strategic-partnership/

■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Russia's Unprovoked and Unjustified Attack on Ukraine. February 24, 2022.
■ Wittkopf, Eugene R. and McCormick, James M. 1999. The Domestic Sources of American. Foreign Policy: Insights and Evidence.

■ 뉴스핌. 키이우 깜짝 방문 펠로시 "美, 우크라이나 승리할 때까지 지원할 것"(22/05/02)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502000005 (검색일: 2022. 06. 05.).
■ 한겨레21. 러시아 경제제재 누가 오래 버틸까?(22/03/13). 출처: https://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51720.html (검색일: 2022. 05. 27.).
■ BBC코리아. 우크라이나: 나토는 무엇이고, 러시아는 왜 이를 불신하나?(22/02/27) 출처: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0521392 (검색일: 2022. 05. 31.).
■ 1945. Ignored Warnings: How NATO Expansion Led To The Current Ukraine Tragedy(22/02/22). 출처: https://www.19fortyfive.com/2022/02/ignored-warnings-how-nato-expansion-led-to-the-current-ukraine-tragedy/ (검색일: 2022. 06. 10.).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Ukraine: Conflict at the Crossroads of Europe and Russia(22/04/01). 출처: https://www.cfr.org/backgrounder/ukraine-conflict-crossroads-europe-and-russia (검색일:: 2022. 05. 30.).
■ Journal of democracy. What Putin Fears Most(22/04). 출처: https://www.journalofdemocracy.org/articles/what-putin-fears-most/ (검색일: 2022. 06. 15.).
■ Middle east eye.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crisis of liberalism(22/04/14). 출처: https://www.middleeasteye.net/opinion/russia-ukraine-war-liberalism-crisis (검색일: 2022. 06. 21.).
■ npr. Ukraine Russia NATO explainer(22/01/29). 출처: https://www.npr.org/2022/01/29/1076193616/ukraine-russia-nato-explainer (검색일: 2022. 06. 19.).
■ Pew research center. Public Expresses Mixed Views of U.S. Response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22/03/15). 출처: https://www.pewresearch.org/politics/2022/03/15/public-expresses-mixed-views-of-u-s-response-to-russias-invasion-of-ukraine/ (검색일: 2022. 06. 10.).

■ The New Yorker. The Soft-Power Politics That Exploded Into War(22/03/22). 출처: https://www.newyorker.com/news/q-and-a/the-soft-power-politics-that-exploded-into-war (검색일: 2022. 06. 19.).

■ 매일경제
■ 일요신문
■ 중앙일보
■ 한겨레

● 투고일: 2022.07.06. ● 심사일: 2022.07.24. ● 게재확정일: 2022.08.15.

| Abstract |

The U.S. Strategy on Russia's Ukraine War

Kim Ils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U.S. strategy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o this end, I discuss the U.S. NATO expansion policy, Russia's response against it, and Ukraine's pro-EU, Pro-NATO policy. I argue that the cause of the Ukrainian war resulted from a conflict between different policies promoted by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Ukraine. Yet, the most important factor was the NATO enlargement that the United States pursued. After World War II, the United States promoted foreign policy based on liberal internationalism. Citing values such as freedom,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e US promoted NATO expansion and missile defense policies in Eastern Europe. Russia responded to this by maintaining its influence in Eastern Europe through Warsaw Treaty Organization. These opposing military policies and strateg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bound to act as factors of conflict. In this paper, I argue that it is high time for the United States to seek new countermeasures to end the current Ukrainian war. Prioritizing the Asian rebalancing foreign policy, the US should come up with a negotiated solution for the current dilemma, and critically review the NATO policy for future European security.

〈Key words〉 U.S. NATO expansion, Liberal internationalism, American internationalism, Ukraine war